



기획특집 2

제품의 환경라벨링과 국제동향

환경라운드의 시대가 도래하려는 가운데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는 ISO-14000을 제정하면서 하나하나 추진
준비를 하고 있다.

이에 ISO의 TC-207에서 환경경영, 감사,
라벨링의 세분야가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 환경라벨링 분야를 소개한다.

이건모 / 아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ISO-14000 제정을 하면서 1993년 6월달 토론토에서 1차 총회가 개최된 이래 여러분과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SC-3라는 환경라벨링 부분으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왔다. 지금 발표내용은 지난 9월달 파리에서 있었던 제4차 실무회의의 결과로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발표한다.

우선 환경경영이라는 것은 환경 측면을 고려해서 조직, 즉 기업경영을 하는 것을 말하며 그것은 기업 활동에 있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기업들이 활동해오면서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이를 고려하여 경영해 나가야한다는 것이 환경경영의 취지인 것이다.

기업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어떻게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할 수 있고 저감할 수 있고 그 제품이 또는 원료가 환경에 얼마나 적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발굴하여 시행해 나가는 과정이라 볼수 있다.

그러면 기업활동과 환경보전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생각해 보자. 현재까지는 정부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정해놓고 정부가 규제하여 기업은 피동적 자세로 따라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업 스스로 노력을 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해야한다는 배경이 자리하고 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목소리가 커지므로 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즉 소비자가 품질이 같고 가격이 유사한 제품이 있을 때 소비자는 환경에 해를 덜 미치는 제품을 상대적으로 선택하고 선호하게 된다.

그러면 기업으로서는 생존차원

환경경영이라는 것은 환경측면을 고려해서 조직, 즉 기업경영을 하는 것을 말하며 그것은 기업활동에 있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기업들이 활동해오면서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이를 고려하여 경영해 나가야한다는 것이 환경경영의 취지인 것이다.

에서 품질은 같고 가격도 저렴하여 동시에 환경을 배려한 제품을 생산을 하게되고 제품생산은 원료의 구입부터 생산, 판매, 사용, 최종 소비자가 처분할때 까지를 고려한 제품의 전 생애에 대해서 기업에서는 이에 신경을 쓰고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규제보다는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서 기업이 스스로 자구노력으로 환경오염방지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다음은 ISO의 TC는 Technical Committee 207에서 환경경영, 감사, 라벨링, 이 세 분야가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전 생애 평가라고 하는 LCA가 이 모든 것의 기본이 되고 있다고 이해를 해야한다.

환경성과도 마찬가지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쓰는 것이고 용어 및 정의도 기본이 되는 data와 definition을 바탕으로 제공해 주는 것이므로 중요하지만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EMS를 우선적 도입이 필요하고 EMS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감사가 있어야 하며 다음 라벨링이 필요한 것이다.

라벨링은 소비자에게 가장 부각

이될 것으로 기대되며 즉 소비자가 판단하는 것은 제품을 보고 선택·판단하는 것이므로 따라서 환경라벨링은 중요하다 하겠다.

이 환경라벨은 크게 두가지 업무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제 삼자가 어느 상품에 환경 친화성 여부를 객관적 근거에 의해서 판단하여 이 제품이 친화성 여부를 검토·평가해 주는 환경마크제도가 있다.

둘째, 당사자가 정하는 환경성 주장이 있다. 이는 기업이 환경관련 광고를 할때 현재와 같이 비교적 기준이 없는 상태하에서 기업이 남용하고 있는 용어들을 제한하고 좀더 과학적 근거로 용어를 만들자는 취지로서 ISO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환경마크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면 제품 부위별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하고 또한 각 제품의 부류별로 제품의 특성과 원료, 생산, 공급의 차이에 따라 부분별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기준 설정시에는 라이프 사이클 개념을 기초로(Life Assesment가 아님) 해서 설정해야 하며 평가는 제삼자가 평가를 해야한다. 기업, 소비자가 아닌 제 3의 객관적 주체가 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환경마크제도를 제3자가 평가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하고 마크부여를 하고 마크부여제품은 그 제품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보다 같은 부류의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환경친화적으로 환경을 보다더 배려했을 때 부여해야 된다.

외국사례를 보면 독일의 경우 "블루엔젤"이라는 프로그램을 1979년부터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캐나다는 "환경선택"이라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2년 환경마크제도를 도입해서 '94년 7월 현재 25개의 제품 부류에서 178개 품목에 마크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환경마크제도"에 대한 인식차원에 있어서 소비자 반응이

미묘한데 그것은 환경관련 선전 및 광고가 무분별하게 범람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예를 들어 "환경친화적", "그린", "무공해" 등 건강적 문제에서 주장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부분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환경마크제도가 과학적 기준으로 엄격히 시행되어있는지 홍보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아직까지 소비자 반응이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ISO-14000 시리즈중 환경라벨링 분야인 환경마크제도는 제품의 전 생애에 걸쳐서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시켜야 된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적용대상의 제품은 소비자가 사

용하는 제품뿐 아니라 어떠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원료뿐 아니라 서비스 분야 까지도 모두 제품이라고 정의를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제도 자체가 자발적인 것으로 환경마크 취득은 기업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것이고 마크 획득시에는 기업이 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독일, 캐나다의 경우 이러한 프로그램을 정부에서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ISO에서 정하는 환경마크제도란 첫째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제품 부류별 기준이 투명(transparent)해야 하고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들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준은 과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제품의 전 생애에 걸쳐 환경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해야 한다.

그 요소로 우선 제품생산시 에너지 사용량과 원자재 사용량, 물과 대기오염 발생 정도, 제품 최종적 폐기량 등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이 기준은 3년에 한번 검토하여 검토 후 개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충분히 검토한후 개정해야 한다.

두번째로 선택성으로 같은 부류 제품으로서 환경적으로 친화성을 검토, 가장 친화적인 제품을 일정기준에 따라 선택, 부여한다.

캐나다의 경우 마크부여는 20~30%로 30%이상은 마크부여하지 않는다.

세번째로 환경마크를 시행시 자문기구를 설치하여 구성원이 제조자, 판매자, 소비자, 환경기술 및 과학단체, 정부, 환경관련 NGO 등 여러 sector에서 균형있게 참여 해야

한다.

국내경우 소비자 및 환경단체에 편중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제조자의 목소리는 매우 적은 상태이다.

그렇다면 결국 환경마크제도 운영의 뒷받침은 제조자로서 참여가 적다면 프로그램의 시행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게 된다.

네번째 투명성으로 이것은 환경마크제도 자체와 제도운영과정이 명명백백하게 노출되고 관련자료를 이해관계자가 요구할 경우 공개해야 한다.(이외의 관계자는 공개할 수 없다.)

그래서 환경마크제도의 원리가 무엇이며 어떤 기준을 갖고 있고, 평가시 순위평가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선택성의 퍼센트는 어떻게 정해져 있는가를 명백히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제도 운영시 어떤 절차를 밟고 마크를 부여 했는가, 기준 검토·개정은 어떻게 하였는가, 특히 중요한 것은 마크협회운영시 재정적 측면과 기준의 검토 및 개정은 결국 실무진에서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실무진의 독단에 호를 염려가 있으므로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실무진의 작업결과를 항상 접할 수 있고 조언과 제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인증 비용과 마크사용비용에 대해서는 영세 소규모 업자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다음은 비밀 보장에 대한 것으로 이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조사과정중 공정 노출의 염려를 생각하여 아무리 요약된 내용이라도 발표를 하여서는 안된다. 가장 간과하기 쉬운 제품 본연의 기능을 고려하지

환경마크제도는 소비자가 환경에 영향을 덜 미치는 제품을 구매해서 제조자가 자발적으로 개선하여야 하고 마크제도는 신뢰성, 투명성, 균형잡힌 자문기구가 구성되어야 하며 기타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포함이 되어야 만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않고 심지어 환경마크를 제품에 표시했을 경우 소비는 줄게 된다는 것인데 이는 아무리 환경적으로 배려를 했다해도 제품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않으면 그가치는 상실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마크부여시 반듯이 고려되어야 하는 중요부분은 제품의 기능에 관한 기준은 환경적 기준 만큼의 위치를 갖어야 한다.

또한 기본적으로 ISO-9000 지침서 28에 의해 환경마크 인증절차가 제정되고 있는데 ISO-9000지침서 28을 기초로 해서 환경관련 시스템을 적용 이를 이용하려고 진행중에 있다.

특히 주목받을 만한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EMS나 Audit와 마찬가지로 ISO-14000의 환경라벨링 분야도 제3자 기관이 비즈니스를 시켜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고가비용 문제로서 기업이 경계하는 부분이다.

그 비용중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것이 QM을 ISO-14000을 하면서 인증하는 제3자가 받겠다 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ISO-9000에서 QM을 받았을 경우 면제한다라는 부분은 파리의회의서의 가장 큰 변화라 볼 수 있다.

제3자 경우 국내환경마크협회와 같이 인증받은 제품품목을 목록을 인쇄물로 배포 해야한다. 독일의 경우 "블루엔젤스"에서는 10만부를 제작하여 5만부는 블루엔젤스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블루엔젤스는 이 부분에 있어 상당한 비용이 든다고 한다.

그리고 현재 라벨링 분과의 세계 표준화가 완성되고 실시는 96년 정도로 예상되며 당사자 환경성 주장은 사실 기업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분야인데 이 분야도 96년 완료 예정으로 현재 용어 및 정의는 내년 2월정도에서 International standard화 되어 채택될 것 같은데 그뒤 반듯이 symbol하고 인증 방법이 같이 따르게 된다. 이는 96년 말에 만 들기 때문에 완성될때 까지 당사자 환경성 주장은 완료되지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환경마크제도는 소비자가 환경에 영향을 덜 미치는 제품을 구매해서 제조자가 자발적으로 개선하는데 그 운영의 묘가 있다.

마크제도는 신뢰성, 투명성, 균형잡힌 자문기구가 구성되어야 하며 기타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포함이 되어야 만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것이다.